

# 해방기 펄 벅 수용과 남한여성의 입지

류진희\*

## 〈차례〉

1. 머리말
2. 해방기 동서(東西), 두 세계의 펄 벅
3. 펄 벅 번역과 남한여성의 인도주의
4. 결론에 대신해

## 〈국문초록〉

제국/식민지 체제 내의 조선여성이 어떻게 국제/지역 구도 속의 남한여성이 되는가. 이 글은 펄 벅(Pearl S. Buck)의 참조 및 번역을 통해서 해방기 여성의 정치적 행보를 더듬고자 한다. 새로운 세계여성 모델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누구보다 빈번히 언급되고 있는 펄 벅이, 해방기에는 노벨문학상 수상작 『대지(The good earth)』를 비롯한 유명한 장편소설들이 아니라, 그 이전 혹은 그 이후에도 찾아볼 수 없는 낯선 단편소설들 중심으로 수용되고 있었다. 또한 동양적 세계가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약소민족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와 관련되어 언급되었다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때 펄 벅은 미국 내에서는 국수주의에 대항하여 아시아의 입장과 동서화합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었지만, 조선에서는 신탁통치 반대의 입장에서 남한만의 정부를 수립하자는 우익의 주장과 더불어 언급되고 있다. 그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과 박사수료

리고 적대적 반공이 아니라 실질적 지원으로 세계대전을 방지하자는 펄 벅의 인도주의도, 해방직후 한동안 침묵했던 우익 남한여성들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논리가 되었다. 여기에는 물론 38선의 실정화에 따라, 북조선과 남한이 구분되기 시작한 한반도의 정황이 존재한다. 이때 남한여성은 해방직후 소개되었던 소련과 중국의 이름 없는 혁명여성들이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몇몇 유명여성들, 즉 루즈벨트의 부인 엘리노어, 장개석의 부인 송미령 등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콜론타이, 베벨, 엥겔스 등의 사회주의 여성해방이론이 아니라, UN의 성립과 활동을 배경으로 하는 아메리카 인도주의에 접근하게 된다. 이는 물론 물리적으로 미군의 지원과 미국의 영향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펄 벅은 미국에서는 좌파 공산주의 동조자의 혐의에 시달렸지만, 남한에서는 우익 남한여성의 모델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방의 열기가 지나가고 생활의 문제가 대두하자, 이들 남한여성은 여성을 대상으로 계몽적인 정책들을 실현해나갔다. 그리고 아직 국가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남한에서, 그들은 당시 국제무대에서 세계여성들과 평등을 전치하며 유사 독립을 느끼게 했다. 물론 이때 UN의 영향 하에서 제기된 여성 평등의 국제적 표준은 여전히 현재까지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해방기 남한에서 펄 벅의 수용은, 해방기 사회주의 이론이 인도주의 정책으로 전치되는 그 순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해방기 남한에서 특출한 아시아 관계 여성명사로 받아들여지던 펄 벅은, 다시 대한민국(R.O.K)에서 가장 널리 읽혀지는 대표적인 서구의 여류, 즉 『대지』의 작가로 낙착될 것이었다. 이 글은 기억에서 사라진 해방기 참조되고 번역되었던 펄 벅의 비판적 발언과 문제적 작품을 더듬어 보고자 했다.

핵심어: 해방기, 펄 벅, 번역, 북조선/남한, 남한여성, 유엔, 아메리카, 미군정, 인도주의

## 1. 머리말

제국/식민지 체제 내의 조선여성이 어떻게 국제/지역 구도 속의 남한 여성이 되는가. 이 글은 펄 벅(Pearl S. Buck)의 참조 및 번역을 통해서 해방기 여성의 정치적 행보를 더듬고자 한다. 탈식민적 격랑 속에서 제국 일본의 여성은 더 이상 근대적 규준이 될 수 없었다. 여기에서 펄 벅은 어느 세계의 어떠한 여성을 모델로 삼을지, 그 인식이 변화하는 와중에 존재하고 있다. 이 글은 남한의 펄 벅 수용을 통해 아메리카 인도주의 정책이 해방기 사회주의 여성해방이론을 전치하는 사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는 해방기 여성운동의 좌우분기와 우익여성의 문화정치가 전개되는 순간을 포착하기 위함이다.

바야흐로 식민주의가 도덕적으로 파산하고 독립국가로 이루어진 세계 구상이 내세워진 이때, 여성이 어떻게 민족국가의 일원이면서 세계시민의 자격을 갖출 수 있을지가 화제였다. 1945년 8월 15일 급작스런 소위 ‘옥음방송’이 있자, 조선은 잠깐의 숨죽임 후 해방의 아우성에 휩싸였다. 그리고 건국부녀동맹(이후 조선부녀총동맹으로 개칭), 여자국민당, 애국부인회, 여성청년동맹 등 여성의 정체성을 앞세운 단체들이 발 빠르게 여성해방과 남녀동권을 들고 조직된다.<sup>1)</sup> 다시금 형성된 해방기 언론장에서 여성관련 소식 역시 단신에서뿐 아니라, 사설을 비롯해 기획기사와 고정

- 
- 1) 우익단체 위주의 여성운동 회고 일별에 대응해, 해방직후 여성의 정치적 결사 및 활동을 우선 좌파적 관점에서 재구한 연구는 이승희, 『한국여성운동사 연구 -미군정기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정외과 박사학위논문, 1991가 선구적이다. 이에 좌우를 비교하여 해방기 여성운동을 조망한 연구로는 문경란, 『미군정기 한국여성운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9가 있다. 또한 해방기 전변한 여성의 생활 및 의식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이배용, 『미군정기 여성생활의 변모와 여성의식, 1945~1948』, 『역사학보』 150, 1999; 이배용 외, 『한국여성사 정립을 위한 여성인물 유형연구 VI(1945~1948)』, 『여성학논집』 13, 1999; 이배용, 『한국여성생활과 의식변화에 대한 현대사적 고찰(1948~1970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25, 2003; 이배용·조경원, 『해방이후 여성교육정책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양상-미군정기(1945)~제1공화국 시기(1960)』, 『한국교육사학』 22, 한국교육사학회, 2000.

코너 등으로 비중 있게 다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sup>2)</sup>

우선 여성의 공적인 부상에 대한 당시 메인 언론의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주는 기사를 하나 소개하자.<sup>3)</sup> “아기 울면서 曰, 식구마다 정치운동, 집에서 나 봐줄 사람 누구요?”라는 문구가 달린 시사만평이다. 너도나도 정치에 뛰어들 때 일어나는 현실적 문제를 보육으로 환원하며, 유독 여성 해방을 치맛자락에 싸넣고 부인참정을 말하는 여성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규범의 문제는 차치하고, 여성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주체로 상정되고 있음이 더욱 주목할 만하다. 다시 말해 소위 ‘가두의 여성’이라는 새 풍기에 “서구화도 좋지만, 조선미를 지키자(Westernization is O.K. But let's keep the beauty of old korea)!”<sup>4)</sup>라는 호소가 간곡했다. 그러나 조선의 해방 없이는 여성의 해방이 없고, 여성의 해방 없이 조선의 해방도 없다는 데 토달 이는 없었다. 이 글은 전후 도래한 민주주의 확대의 흐름 속에서 여성참정이 보편적으로 요구되고 있을 이때<sup>5)</sup>, 펄 벅은 서구중심의 전후처리에 대항해 아시아의 자주독립을 주장하고 있었다는 데서 시작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언뜻 보편과 특수라는 측면에서 반대로 외쳐지는 듯한 두 목소리 사이에서, 조선여성들이 끊임없이 자신의 위치를 모색하게 될 것임을 염두에 두자.

2) 해방기에는 전무후무하게 여성신문 일간지도 5개나 발간되었다. 관련 연구는 박용규, 『미군정기 여성신문과 여성운동』, 『한국언론정보학보』 19, 한국언론정보학회, 2002 가을

3) 『시사만화』, 『자유신문』, 1945. 10. 31.

4) 『Seoul Times』, 1945. 10. 4; 『격동의 해방3년』,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6, 56쪽 재인용.

5) 1945년 10월 즈음이 되면, 패전 일본에서부터 “민주주의 정치건립의 제1보”로 여성참정권이 부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또한 12월에는 프랑스에서 공산당 측 17명을 포함하여 총 32명의 여대의사가 선출되었다고 보도된다. 이러한 전세계적인 변화는 북조선인민위원회에서 남녀평등권을 먼저 선포하고(1946년 7월 21일), 뒤이어 조선인민공화국 역시 “부인의 완전한 해방과 남녀동권”을 시정방침으로 적시하는 데(1946년 9월 18일) 직접 반영될 터였다.

## 2. 해방기 동서(東西), 두 세계의 펄 벅

주지하듯 펄 벅은 『대지』의 노벨상 수상을 통해 미국문학의 신성으로 떠올랐고, 1930년대 후반 일본의 만주 침략과 진주만 공격으로 인한 아시아의 사건과 형세에 쏠린 미국의 관심을 충족시켜주는 자문가로 명망을 떨쳤다. 그러나 일본이 패망하자, 역설적으로 미국 내에서 아시아는 더 이상 뉴스거리가 되지 못하고 일반의 관심에서 흐릿해져갔다. 그리고 펄 벅 역시 동서협회 운영 등 관련 활동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오히려 펄 벅이 식민지의 전후 처리와 관련한 발언을 할 때마다 당국은 불편한 기색을 보내왔다. 그리고 냉전의 전야에서 레드퍼지(red purge)가 일어나면서 공산주의자의 혐의에 내내 시달렸다.<sup>6)</sup> 그런데 펄 벅에 대한 이 같은 입장 변화는 조선에서는 완전히 반대로 일어났다.

다시 말해 『대지』는 식민지 “조선에서는 너무도 비참한 농민의 생활은 일반 교화에 미치는 영향이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검열의 대상이었지만<sup>7)</sup>, 해방기에 펄 벅은 누구보다 빈번히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때 펄 벅은 노벨문학상 수상의 이유였던 동양의 가치를 구현한 작가로서가 아니라, 조선의 자주독립 주장을 대변하는 명망가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강대국 중심의 세계재편에 대항해 펄 벅이 주장한 약소민족의 권리는, 조선에서 무엇보다 신탁통치 좌우논란 속에서 남한만의 정부를 수립하자는 우익 측의 주장과 함께 잊혀졌다. 그렇다면 과연 펄 벅이 구체

6) 펄 벅이 공산당 전위 조직과 관련된다는 등 근거 없는 주장에, 연방 수사국은 실제로 10년 동안 그의 뒤를 따라다녔다고 한다. 전후 미국을 위시한 서구에서 변화하는 펄 벅의 지위와 활동에 대해서는 피터 콘, 『펄 벅 평전』, 이한음 역, 은행나무, 2006, 475~482쪽 참조.

7) 『대지』 조선에선 연극상연금지, 『동아일보』, 1938.4.7. 펄 벅의 『대지』는 1937년 폴 무니(Paul Muni), 루이즈 라이너(Luise Rainer) 주연으로 영화화되어, 미국에서의 성공에 이어 조선과 중국의 외국인 조계 등지에서 상연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역시 “지나 농민의 궁핍을 가혹히 묘사하여 실정과 훨씬 거리가 먼 개소(個所)가 많어” 상연은 금지되었다. 『영화 <대지>와 <대전(大戰)간첩망> 북경서 상연금지. 묘사가 가혹타는 이유로』, 『동아일보』, 1938.2.19.

적으로 어떻게 언급되는지 살펴보자.

필 벅이 해방기 조선의 언론장에 모습을 드러내는 때는 1945년 11월이다. 동월 10일 그는 루즈벨트 호텔에서 한국인 사업가 유일한을 환영하는 동서협회 만찬을 주재하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행한 발언은 이후 반복되는 인용의 원형이라 할 만하다. “조선인은 탁월한 조직자이며 기타방면에 있어서도 자치의 능력을 가진 것을 증명하였으므로 완전한 독립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연설의 내용은 며칠 뒤 조선에 타전되었다.<sup>8)</sup> 그리고 약 한달 뒤인 12월 13일 인도차이나와 인도네시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인도연맹 제8회 정례회의가 열렸을 때, 조선 대부분의 언론이 필 벅의 다음 목소리를 동시에 받아적기에 이른다. “우리들은 전 인류의 자유와 모든 제국을 없애버리기 위하여 감투(敢鬪)하기를 제의한다. 아세아의 모든 나라에는 봉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모든 혁명의 봉화는 동일한 근원과 원인을 가지고 있다. 전아세아의 민중들은 자기네들의 독립정권을 절망하고 있다. 그들이 관심하고 있는 것은 조흔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자주정부의 문제인 것이다.”<sup>9)</sup> 이는 하루 뒤 있을 모스크바 삼상회의에 대한 우익 측의 입장과 그대로 겹쳐진다. 신탁통치를 전제로 열린 회의였고, 미국이 먼저 제의한 신탁통치였지만, 주지하듯 미군정 하의 남한에서는 우익이 반탁, 즉 즉시독립의 입장을 선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시아의 독립주장이 남한만의 정부수립으로 전환하는 이러한 양상은, 해방의 무대에서 조선여성의 모델로 여성명망가가 여성혁명가들의 자리를 대체하는 과정과 동궐에 있다.

잠시 우회해서, 1946년 1월 1일 신년특집호 『자유신문』이 “1천 5백만 여성문제의 해결 여하가 진보적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건국 후에 국

8) 『완전한 독립을 부여하라, 필 벅 여사 조선을 찬양』, 『신조선보』, 1945. 11. 15.

9) 『전 아시아 민족의 숙원은 자주 정부의 수립, 작가 필 벅 여사 강조』, 『서울신문』, 1945. 12. 15; 『쉴아시아 민족은 독립 갈망. 작가 필 벅 여사가 강조』, 『조선일보』, 1945. 12. 15; 『아세아의 민족은 자주독립을 절망(切望), 필 벅 여사 강조』, 『신조선보』, 1945. 12. 15; 『아세아 민족은 독립 절망, 작가 필 벅 여사가 강조(뉴욕)』, 『동아일보』, 1945. 12. 16 등.

가발전 상 중대한 관건이 될 것”이라는 문제의식 아래, 안미생과 고명자를 초청해 진행한 정담(鼎談)에 주목하자.<sup>10)</sup> 여기에서는 뜻밖에 조선 공산당의 여성 트로이카로 식민지기부터 널리 알려진, 조선부녀총동맹(이하 ‘부총’으로 표기) 위원이자 조선인민공화국 서울시인민위원이었던 고명자보다, 홍일점 비서 자격으로 김구 입국 시 동행했다고 시선을 모은 안미생에게 “중국의 여성들은 어떠한지” 더욱 자주 조언이 구해지고 있다. 해방직후 조선의 여성은 “근방 중국과 소련의 모든 혁명적 역할을 한 변혁기 여성들에 대하여 부끄럽지 아니한 공과를 남기었다고 할 수 있을까”<sup>11)</sup>라고 추궁되었다.<sup>12)</sup> 그러니까 좌익 출판물의 우세 속에서, 1946년까지는 콜론타이, 베벨, 엥겔스 등의 여성해방이론이 활발하게 소개되었던 것이다.<sup>13)</sup> 그리고 이념의 현실화를 눈앞에 둔 보고문학의 흥성에 따라<sup>14)</sup> 사회주의 혁명 및 관련 여성인물들에 대한 기사도 다수로 게재되

10) 실제 좌담은 본사 쪽 1명이 사회자로 배석하여 1945년 12월 16일에 진행되었다. 『건국도상 중대한 과제인 천오백만 여성의 나갈 길』, 『자유신문』, 1946. 1. 1.

11) 『사설 부인운동에 기대한다』, 『자유신문』, 1945. 11. 2.

12) 1946년 1월 출판되어 나온 여성잡지들, 즉 『여학원』, 『여성공론』, 『생활문화』는 모두 창간호에서 중국 혹은 소련의 여성에 관한 글을 실고 있다. 정래동, 『중국의 여학생』, 『여학원』 1, 1946. 1; 이정아, 『소벡 동맹 여성들의 생활』, 『여성공론』 1, 1946. 1; 이명선, 『중국의 여성해방』, 『생활문화』 1, 1946. 1.

13) 콜론타이, 『삼대의 연애』, 조소심 역, 『문화창조』 1:1, 1945. 12; 아우구스트 베벨, 『현대의 부인』, 『여성문화』 1, 1945. 12; 아우구스트 베벨, 『부인론』(상), 민중서관, 1946. 5. 30; 아우구스트 베벨, 『부인론』(하), 민중서관, 1946. 6. 25. 한편, 1926년에 출간되었던 사카이 도시히코(堺利彦)와 야마가와 기쿠에(山川菊英)의 공저, 『사회주의의 부인관 급 남녀관계의 진화』(맑레출판사, 1946. 1. 30)도 발간되었다. 박지영은 해방기 번역이 당대 이념적 선전활동의 주요 매개체였으며, 또한 당대의 지식의 번역의 정치성을 통해 재구축되고 있었다고 논구했다. 관련논의는 『해방기 지식장의 재편과 “번역”의 정치학』, 『대동문화연구』68, 2009 참고. 대략적인 번역 관련 서지는 다음을 참조했다. 김병철 편저, 『세계문학 번역서지 목록 총람: 1895~1987』, 국학자료원, 2002; 오영식 편저, 『해방기 간행도서 총목록: 1945~1950』, 소명, 2009.

14) 한국 근대번역문학 연구의 선구인 김병철은 1945년에서 1950년까지를 ‘혼란과 범람’의 시대로, 특히 저널리스트 입장에서의 시사적이고 계몽적인 보고문학이 중역, 초역, 오역 등으로 번역·생산되었다고 특징짓는다. 『한국 근대번역문학사 연구』(하), 을유문화사, 1975, 825쪽.

고 있었다.<sup>15)</sup>

그러나 이러한 사회주의 여성해방이론을 기저로 한 여성혁명가들에 관한 논의들은 미군정의 지원 및 미국의 영향 아래 여성명망가들의 국제적 활약에 대한 보도로 바뀌게 될 것이었다. 1946년 1월부터 “4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조선에 있어 여자로는 처음으로 외국에 공식사절로” 고향경이 포함된 조선인외교정책 사절단의 파견결정이 나고,<sup>16)</sup> 2월에는 김활란이 세계여자기독교청년대회(YMCA)와 세계여자선교사대회의 초빙을 받아 서울을 떠나게 된다.<sup>17)</sup> 이처럼 다수의 혁명여성들에 대한 주장이 단독의 여성명망가에 관한 서사로 바뀔 무렵, 좌우합작의 통일전선이었던 부총에서 우익 측 여성들이 이탈하기 시작한다. 탁치반대를 명분으로 독촉부인단이 창립되어,<sup>18)</sup> 해방 후 처음 맞는 1946년 3월 8일 국제부인의 날이

15) 로자 룩셈부르크의 임종을 그린 기사(『로-자 룩셈부르크의 임종 부인공산당원 1919년 1월 15일 死』, 『신세대』 1, 1946. 3)나 폴란드 출신의 러시아 망명작가 반다 바실레프스카야(Vanda L'vovna Vasilevskaya)의 소설 『공화국』(이우호 역, 『민성』 2:13, 1946. 12. 1), 그리고 에드가 스노우의 『모스크바 결혼』과 『스몰렌스크의 세 처녀』(에드가 스노, 『민주주의의 승리: 대전중 소련, 중국, 몽고여행기(원제는 인민은 우리편)』, 왕명 역, 수문당, 1946; 에드가 스노, 『스몰렌스크의 세 처녀』, 왕명 역, 『민성』 2:2, 1946. 2; 에드가 스노, 『모스크바 결혼』, 왕명 역, 『민성』 2:3, 1946. 3)가 그것이다. 이밖에 이후 펄 벅의 수용에도 관여하는 채정근이 번역한 폴란드 좌익 여자의용병에 대한 『총 멘 처녀 스테냐』(『민성』 6, 1946. 5) 등이 있다.

16) 『격동의 해방 3년』,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6, 152쪽; 『남녀동등권 획득이 사명, 방미의 여인사절 고향경 박사 활약』, 『자유신문』 1946. 5. 1.

17) 『기청(基靑) 초대로 김활란씨 도미』, 『자유신문』, 1946. 2. 14; 『김활란씨 도미, 세계기독교대회참가에』, 『서울신문』, 1946. 2. 15; 『김활란 박사 작일 도미』, 『동아일보』 1946. 2. 17.

18) 양동숙은 해방 후 여성단체 연구가 대체로 좌익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국가기구와의 유착 및 그에 의한 동원을 해명하기 위하여 독촉부인회를 비롯한 우익 여성단체 및 여성 국가기구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관련 연구로는 양동숙, 『해방 후 독립촉성애국부인회의 조직과 활동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2,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0. 3; 양동숙, 『대한부인회의 결성과 활동 연구』, 『한국학논총』 34,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2010. 8 참조. 정현주 역시 해방부터 이승만의 제1공화국이 끝나는 4·19 기간까지의 여성단체들의 성격과 활동을 정리하여 이때가 ‘여성운동의 암흑기’가 아니라 오히려 모권보호 및 가정생활에 초점을 두고 역동적으로 활약했다고 주장했다. 관련내용은 정현주, 『해방 후부



각기 따로 기념된다. 부총이 “민족투쟁 기념인 3월 1일과 국제부인의 날인 3월 8일의 뜻 깊은 두 명절을 맞이하여”, “1천5백만 부녀의 정치적 각성과 정치의식의 계몽향상을 꾀하고자 1일부터 8일까지”<sup>19)</sup> 정한 부녀해방투쟁기념주간의 열기는, 독립촉성부인단이 애국부인회(이후 독립촉성애국부인회로 통합), 그리고 여자국민당과 함께 열었던 3월 2일 ‘기미순국부인추도식’에 잠식되었다.<sup>20)</sup> 세계여성에 버금가는 조선여성의 현재적 지위 향상을 의도했던 국제부인데이 축하식은 결국 피압박 체험의 하나였던 3월 1일의 민족적 희생을 전면화했던 추도식에 압도된다.

이제 중국 및 소련, 그리고 세계 각국의 혁명여성들에게 얻은 여성해방의 영감은, 3·1운동이 대표하는 토착적 쫓겨와 물리적 탄압의 기억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곧 미국여성이 중심이 되는 세계부인들의 국제적 무대로 그 시선을 옮기게 될 것이었다. 부총 혹은 북조선여맹이 모스크바의 국제민주여성연맹에 참석했다는 소식은 단신 외에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이 전환은 미군정 당국에 가장 유용했다. 주지하듯 절대적인 정보부족으로 미군정은 식민지기 인사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사회주의와 결합한 대중봉기의 가능성 앞에서, 민주주의적 진전의 표시로 여성들이 등용되기 시작했다. 이때 여성명망가는 다소의 친일혐의에도, 점령의 상황보다 해방의 기대를 더욱 환기시킬 존재들이었다. 펄 벅은 바로 이 순간, 다시 언론에 등장한다. 그런데 이때 옮겨진 펄 벅의 발언은 의미심장하게도 이전처럼 아시아의 역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전세계 여성들의 자유신장에 기여하는 미국여성의 역할에 대한 것이었다. 그

터 1950년대까지의 여성단체의 성격과 활동내용 -현대여성단체의 기원, 『유관순연구』5, 백석대 유관순연구소, 2005. 12 참조.

- 19) 「부녀해방투쟁기념주간, 『자유신문』, 1946. 2. 24; 「부총 해방투쟁 기념주간, 부총서 3월 1일부터 다채한 행사, 『서울신문』, 1946. 2. 25; 「국제부인기념일, 부총서 다채한 행사준비, 『서울신문』, 1946. 3. 4; 「부녀해방투쟁의 날, 작일 국제부인데-축하식 행사, 『서울신문』, 1946. 3. 9; 「국제부인일 기념, 『자유신문』, 1946. 3. 9.
- 20) 「부녀들도 ‘피’ 뿌렸다. 조국광복에, 『동아일보』, 1946. 3. 3; 「어제 기미순국부녀추도회를 집행, 『동아일보』, 1946. 3. 3; 「3.1운동에 참가한 여투사들의 감회록, 『동아일보』, 1946. 3. 3.

리고 1946년 5월, 펄 벅의 동서협회가 주최한 이 범미부인협회 식장에는 도미 중인 김활란이 조선대표로 참가하고 있었다. 조선의 여성명망가는 “더욱 합리적이고 안락한 세계의 건설을 위하여 많은 공헌을 할 것”<sup>21)</sup>이라고 펄 벅이 장담한 국제부인들과 만나게 되었다. 1946년 8월 고향경과 김활란의 귀국 기사가 연일 게재될 때, 한편으로는 임영신의 도미가 발표된다. 그리고 여자국민당이 대대적으로 준비한 송별회에서는, 루스벨트 부인과 트루만 부인 등 이들 국제부인들에게 보낼 기념품이 의논되고 있었다.<sup>22)</sup>

질어가는 냉전의 기운 속에서 아시아를 알아야한다가 아니라 아시아를 도와야한다고 태도를 수정하면서 펄 벅이 취한 이러한 아메리카 인도주의(Humanitarianism)는 한쪽으로는 전후 민주주의 확장에서 여성에게 주어졌던 역할이기도 했다. 다시 말해 식민지를 착취해 진행된 강대국들 간의 대전 수습의 일환으로 민족자결, 자유민주 등의 논리를 구현할 초국가적 기구로 국제연합의 역할이 강조되고, 그와 더불어 내부에서 여성인권의 증진을 담당할 기구 역시 독자적으로 설치되어야한다고 여성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다.<sup>23)</sup> 그리고 이 과정에서 루즈벨트와 송미령, 그야말로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부인들이 주목되었던 것이고, 펄 벅 자신은 미국이라는 일국을 넘는 국제문제 해결의 담당자로 UN, 그리고 특히 여성을 국가와 지역의 이익을 넘는 주체로 재발견했던 것이다.<sup>24)</sup>

21) 『여성의 사회건설에 초석되라. 펄 벅 여사 국제부인회합서 열변(뉴욕)』, 『동아일보』, 1946. 5. 26.

22) 『여자국민당 중집(中執)』, 『자유신문』, 1946. 8. 5.

23) 『남녀동등을 주장. UN부 소의회서』, 『조선일보』, 1946. 5. 13. 유엔의 6개 조직의 하나인 경제사회이사회가 1946년 2월 인권위원회 내에 여성지위와 관련한 소위원회 설립을 가결하였지만, 인권위원회와 동등하면서도 완전히 독립된 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1946년 6월 여성지위위원회 설립이 결정되었다. 관련내용은 변화순·김은경, 『유엔여성지위위원회 50년과 한국 활동 10년』, 한국여성개발원, 1997. 12, 10~17쪽 참조.

24) 『미국서 본 세계 10걸』, 『자유신문』 1946. 6. 20. “지금 살고 잇는 사람 중에서 당신은 누구를 가장 숭배합니까?”라는 질문에 미국인들이 꼽은 세계 10걸의 순위에서 엘리노어 루즈벨트는 맥아더, 아이젠하워, 트루만의 뒤를 따르고 있으며, 송미

이렇듯 펄 벅은 미국 내에서는 국수주의에 대항하여 아시아의 입장과 동서화합의 주장을 대변했으나, 조선에서는 신탁통치 반대의 입장에서 남한만의 정부를 수립하자는 우익의 입장에서 참조되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적대적 반공이 아니라, 실질적 지원으로 세계대전을 방지하자는 펄 벅의 인도주의는, 해방직후 한동안 동면기에 있었던 우익 여성들이 활동할 논리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고등교육을 받은 이들 여성은, 특출한 외국어 및 세련된 매너로 남성 민족주의자들이 처리하지 못했던 사안을 해결해나갔다.<sup>25)</sup>

그리고 최초의 여성대상 정책기구인 부녀국이 신설되고, 한미수호종합 잡지 『아미리가(亞美理駕)』가 창간될 무렵,<sup>26)</sup> UN에 파견된 임영신은 식량 문제 및 전쟁 가능성 등 인도주의에 호소하는 전략으로 조선을 이슈화시켰다. 1946년 말부터 1947년 내내 임영신의 활동은 성공적 외교의 일환으로 신문 1면에 보도되었다. 여기서 “루즈벨트 대통령 부인 에레나

령도 10위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고 소개되고 있다. 채정근 역시 “정치무대에서 활약한 여성으로는 누구보다도 서의 미국 루즈벨트 여사와 동의 송미령 여사를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세계무대의 여성군상』에서 꼽는다. 채정근, 『가정과 부인: 세계무대의 여성군상』, 『경향신문』, 1946. 10. 7.

25) 신생국가건설 과정에서 여성들은 공적으로 동원되었거나, 반대로 사적이지만 추구했다고 판단되어왔다. 그러나 김은실·권김현영은 당시 여성들이 민족적이고 사회적인 가치를 어떻게 자유와 남녀평등의 요구와 결합시킬지 분투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제 1공화국 여성지도자들의 사회정치적 비전이 이후 이성애적 스캔들로 재현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새로운 공적영역의 일부’가 되려는 그들의 욕망을 이룩만을 위시한 남성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한 이후 제도적으로 배제한 역사적 효과에 다름 아니라고 했다. 이러한 공적영역의 젠더화에 대해서는 김은실·권김현영, 『1950년대 1공화국 국가건설기 공적영역의 형성과 젠더정치』, 『여성학논집』 제29집 1호, 2012, 42~43쪽 참조.

26) 부녀국은 1946년 9월 최초 여성담당 행정조직으로 미군정 법령 제107호로 설치되어 1988년 정무 제2장관실이 신설되기까지 무려 40년간 비슷한 골격으로 유지되었다. 여성 관련 업무가 국가 조직 내에서 어떻게 분장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황정미, 『해방 후 초기 국가기구의 형성과 여성(1946~1960)』, 『한국학보』 190, 2002 참조. 잡지 『아미리가』는 ‘한미친선지도(韓美親善之道)’를 내걸고 1946년 9월 창간되었는데, 여기에서 박인덕과 임영신이 민주주의 하의 여성들의 권리 등을 소개하고 조선도 무식을 떨치고 신생활로 나아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사의 주선에 의하여 10월 24일 처음으로 UN에 민주대표로 비공식으로 참석”<sup>27)</sup>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대대적으로 선전된다. 이런 과정 속에서 조선독립의 문제는 임시정부의 승인과 UN가입의 용인 차원으로 축소되고 있다.

마침내 조선은 남한과 북조선으로 달리 인식되기 시작한다. 남한의 8개 여성단체가 전국여성단체총연맹으로 집결하고, 좌익의 부총은 북한과의 일체를 근거한 ‘남조선’민주여성동맹(이후 ‘남조선’노동당의 부녀부)으로 편입된다. 바로 이 때 의미심장하게도 펄 벅의 소설들이 번역되는 것이다. 다음에서는 펄 벅의 그 작품들이 당시 변화하는 남한여성의 입지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3. 펄 벅 번역과 남한여성의 인도주의

해방기 펄 벅은 노벨문학상 수상작가라기보다 우선은 아시아문제 관련 여성명망가로 받아들여졌다고 했다. 또한 작가로서는 다소 늦게 논의된 당시의 펄 벅 역시, 이전처럼 “규수작가로서 이처럼 스케일이 큰 작품을 착수하고 구성할 수 있을까” 혹은 “오란과 같이 잘 그려진 동양여성을 읽지 못하였다”<sup>28)</sup>고 감탄되지만은 않았다는 점에서 새롭게 논의될 만하다. 다시 말해 이때에는 “지나 대륙을 그린 최고의 문학”이라는 대표작 『대지』 등 유명장편이 아니라 완전히 생소한 단편소설들이 번역되었던 것이다. 물론 해방기 가장 먼저 소개되는 펄 벅의 단편 『피난군』은 1940년

27) 『본사특과원 임영신 여사 뉴욕 UN총회 참석』, 『동아일보』, 1946. 11. 1; 『임영신의 미소양군철폐요구 UN을 통해 국제 보도기구에 제시 결정』, 『조선일보』, 1946. 11. 4; 『재미 중 임영신, 민의(民議) 의장 리승만에 보낸 전문 공개』, 『조선일보』, 1946. 11. 5; 『임여사 UN 비공식 참가』, 『자유신문』, 1946. 11. 7 등등.

28) 김성철, 『펄- 벅과 동양적 성격』, 인문사, 1940. 펄 벅은 1936년 심훈에 의해 『사해 공론』에 최초로 번역되었다. 그가 장티푸스로 타계하는 바람에 연재는 6회로 중단된다.

『인문평론』 1월호 노벨상 작가선의 하나로 간략히 소개된 것이기는 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946년 7월에 발간된 『세계단편선집』에 실린 이 소설은, 뒤쪽 작가소개에 “1931년 양자강이 범람하여 피해가 있었을 때에는 몸소 단편소설을 신문과 잡지에 게재하여 구조기금에 찬조”하기 위해 집필되었다고 적혀있는 만큼, 펄 벅 소설의 특징이던 식민지기의 동양적 현실 보다 해방기의 인도적 주장에 더욱 닿아있다고 할만하다.<sup>29)</sup> 아닌 게 아니라 다음 펄 벅의 작품들은 식민주의 아래에서의 인종 간 위계와 그에 대한 반대를 드러내는 데에서, 국제연합 체제에서의 동서양 여성의 만남과 그로 인한 연대를 주장하는 것으로 초점이 옮겨가고 있다.<sup>30)</sup>

먼저 1947년에 들어서면서 펄 벅이 광범위한 국제적 활동과 관련되어, 애국심에 의심이 간다고 주시되었던 정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때 펄 벅은 아시아의 해방을 전반적으로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소련에 대한 강경책이 필리핀과 조선에 있어서 진정한 민주주의화의 계획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냉전적 사고에 기반한 미국 당국의 세계구상 자체를 강경하게 비판했던 것이다. 그 맥락에서 펄 벅은 “공산주의나 자본주

29) 펄 벅, 『피난군』, 임학수 역, 『세계단편선집』, 1946.7. 이 소설은 천재지변으로 몰려든 피난군에 생계를 위협받는 다던 도시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형제여, 나는 당신께 동정을 구하지는 않았되다”라고 말하는 한 노인이 죽음 앞에서도 손자를 돌보고 땅으로 돌아갈 날을 위해 씨를 준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동일한 임학수 번역으로 1948년 10월 『세계문화』 창간호에 한번 더 실린다.

30) 펄 벅 재단을 위시해 펄 벅이 한국에 미친 영향을 생각하면, 그의 생애와 문학을 동태적으로 이해하거나 학문적으로 정리한 연구는 소략한 듯하다. 김효원이 펄 벅이 중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동서의 정신적 가교를 맺고자 했고, 그것이 작품에 세계정신으로 드러난다고 주장한 이래, 심상옥은 5,60년대 매카시즘의 영향 및 남성중심의 문학에서 삭제된 펄 벅을 다시 도래한 국제적인 환경 속에서 재고할 필요를 말하고 있다. 관련해서는 김효원, 『펄벅의 문학작품에 나타난 세계정신』, 『영어영문학』 19, 한국강원영어영문학회, 2000; 심상옥, 『펄 벅에 대한 재고』, 『2006년 가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대한영어영문학회, 2006; 심상옥, 『동서융합의 관점에서 본 펄 벅의 페미니즘』, 『동서비교문학저널』, 동서비교문학학회, 2006; 심상옥, 『동-서 양쪽에서 재조명되는 펄 벅』, 『신영어영문학』, 신영어영문학회, 2007; 김길수, 『펄 벅의 <동풍서풍>-여성억압과 가부장적 지배구조의 해체』, 『영어영문학연구』 37권 2호, 대한영어영문학회, 2011.5 참조.

의에 가담하지 않는 동시에 여하한 정부에도 관계하지 않는” 세계의 조정자가 필요하다고 하여, 다름 아닌 UN을 그 담당자로 지목하고 있다.<sup>31)</sup> 아시아의 가치에서 시작한 그의 주장이 최종적으로 UN의 역할로 낙착되는 이 변화에 민첩히 반응한 것은 다름 아닌 38선의 실정화에 따라 새로운 입지를 모색했던 우익 남한여성들이었다.

1948년 2월, 해방기 대표적인 종합지 『신천지』에 실린 펄 벅의 「미·소협조의 길」에서 이 미묘한 조율이 감지된다. ‘어떻게 소련을 이해할 것인가’라는 부제 하에 펄 벅은 하루아침에 혁명을 달성하라고 강압적으로 인민을 기계처럼 뒹달하는 공산주의 인텔리를 분명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부패한 토착정부를 지원하여 일반 민중으로부터 외면 받는 미국정부도 문제시한다. 그래서 펄 벅은 인민으로 향하는 직접적 원조, 즉 “인민들이 그 종류의 여하를 불문하고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확보하여야 될 몇 가지 기본적 공여에 관해서 세계적 관리기구”<sup>32)</sup>를 주장하는 것이다. 분명히 여기에서 UN은 미국에 대항하는 조직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펄 벅의 인식과 달리, 미국의 국수주의와 UN의 인도주의는 전후 아메리카니즘을 형성하는 퇴비우스 띠의 안과 밖이었다. 그리고 이제 남한에서 이 두 면은 하나가 될 것이었다. 바야흐로 봉쇄를 본격화하는 미군정 하에서 조선이 38선으로 분단되어 폐색되어갈 때, 남한여성들은 UN체제 아래 펼쳐진 국제무대에서 활약하기 시작한다.

1948년에 번역된 펄 벅의 두 작품 「백인녀와 황인남」<sup>33)</sup>과 「정복자의 처녀」<sup>34)</sup>는 미국의 국수주의와 UN의 인도주의, 조선의 분단과 남한여성의 활약이 교차되는 정황을 드러내는 듯하다. 우선 「백인녀와 황인남」은 “여사의 단편 중에서도, 흥미있고, 무게있는 역작”으로, “특히 백인과 황

31) 「신전쟁방지자는 리 UN 총장과 월레스씨뿐 펄 벅 여사 갈파」, 『경향신문』, 1947.3.25, 1.

32) 펄 S. 벅, 「미소협조의 길 -어떻게 소련을 이해할 것인가」, 『신천지』 3권 2호, 1948. 2.

33) 퍼억 S. 벅, 「백인녀와 황인남」, 이호근 역, 『민성』 45, 1948. 5. 1.

34) 펄 벅 여사, 「정복자의 처녀」, 채정근 역, 『부인』 3:3, 1948. 8. 1.

인의 감정의 논리와, 마음을 찌르는 바 있어” 소개한다고 역자가 밝히고 있다. 이야기는 저가에 옷을 지으려는 백인 부인과 조카의 죽음으로 돈이 필요한 중국 의공(衣工) 사이에서 하루 동안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토박이 의공을 잘 다루려면 딱딱거리야한다는 친구의 조언을 따르는 부인에게, 의공은 막 임종한 조카의 죽은 채취가 지은 옷에 배여 더 이상 주문을 못 받으면 어쩌나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 소설은 옷 한 벌을 더 지어 조카의 관을 마련하려는 의공의 바람이 좌절되고, 백인부인이 프릴이 얇전히 달린 옷을 단 5불에 지어 만족한다는 데서 끝난다. 적은 임금에 토착 노동을 착취하려는 백인의 뻔뻔함, 그리고 그에 항거하지 못하는 황인의 비굴함이 시종일관 음습하고 암울하게 그려지고 있다. 이는 명백히 반식민주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전후 식민지 처리가 독립국가 형성으로 직결되지 못하는 당시에 대한 비판이라 읽힐 만하다.

반대로 『정복자의 처녀』는 미군 텃트와 일본여인 에즈 사이의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오해를 시종 건전하고 밝은 분위기로 전달한다.<sup>35)</sup> 이즈음 미국의 군사훈련안을 반대하고,<sup>36)</sup> 또 미국의 일본재건 정책을 비판하던 펄 벅을 생각하면, 번역자 채정근이 “일본주둔 미병사와 일녀의 문제를 취체”했으면서도 “인기작가적 안이에 떨어진 듯하다”<sup>37)</sup>고 한 혹평이 무색치 않다. 그러나 이 작품은 번역자의 의도였던 “소위 풍기문제에 대한 어떤 윤리관” 때문이 아니라, 미국 주도의 세계에서 동양과 서양의 여성이 만나는 한 방식을 정경화하고 있다는 데 적당한 의미가 있다. 한 마디로 이 소설은 에즈가 지금 만나고 있는 미군 텃트가 아니라 그의 여자친구, 즉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여성 수를 인식하는 이야기에 다름없기 때문이다. 텃트는 미군정의 이질적이고 억압적인 정복자의 법을 상기시키는 반면, 수는 인종주의를 넘어 모두 같은 인간이라는 휴머니즘적 자

35) 예를 들어, 미군인 텃트가 오비(帶)를 쿠션이라고 한다던가, 일본여성 에즈가 “사슴, 배고파요(deer, hungry)”를 “여보, 배고프세요(dear, hungry)로 듣는다는 등의 에피소드가 삽입되고 있다.

36) 『동서화평방해, 펄 벅 여사, 미 대일정책에 일시(一矢)』, 『서울신문』, 1948.7.16.

37) 채정근, 『만추 여류작가 특집 - 현존한 세계여류작가들』, 『경향신문』, 1946.10.24.

각을 일깨우고 있다. 여기에서 에즈는 텃드가 아니라 수에게 어떤 희구의 감정을 느낀다. 먼저 구체적인 줄거리를 통해 이 관계설정이 남한여성에게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짐작해보자.

모두들 정복자 미군을 즐겁게 하려고 애를 쓰는 어떤 도시에, 아름다운 일본여인 에즈와 키 큰 미군 텃드가 산책을 한다. 이 사이는 여러 명이 따라다니는 것보다 한 명과 만나는 것이 안전하리라는 에즈의 부모에 의해 용인되고 있다. 그러나 텃드와 에즈 사이에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레 형성되는 호감은, ‘음식’으로 상징되는 이 두 체계간의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자원의 불평등 때문에 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텃드가 제공한 음식에 에즈는 ‘정조’밖에는 대가가 될 수 없다고 의례히 생각했던 것이다. 에즈가 텃드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이러한 상황을 부모에게 탄로하는 소설의 마지막은 분명 풍기의 문제로 범박하게 말해지던 해방기 민족과 인종 사이에 놓인 갈등을 단박에 문제시한다. 다리가 저려 “이렇게 하고 오래 있을 수는 없소”라고 얼굴을 찡그렸을 뿐인데, 텃드의 이 표정은 천황 폐하도 행복했다는 정복자의 요구로 읽혀진다. 그러나 풍기는 민족의 문제이지만, 동시에 여성만의 상황이기도 했다.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자신들의 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며 부모가 물러나자, 이제 에즈는 혼자가 되었다.

그 누구의 보호 없이 혼자인 이 동양여성이 선의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원초적 장면에서는 여전히 정복자일 수밖에 없는 서구남성을 어떻게 대할 수 있는지, 펄 벅의 이 소설은 예측과는 다른 결말을 제시한다. 완전히 행복한 인형같이 에즈가 앉아있다. 수는 텃드가 그를 안으려하는 바로 그때 등장하는 것이다. 텃드의 가슴에서 에즈가 낚아챈 지갑 속 수의 사진이 바로 그것이다. 텃드의 약혼자 수로 인해 이 능욕의 순간은 순식간에 무화된다. 더 나아가 이들은 서로를 자기와 똑 같은 인간으로 느끼기 시작한다. 정복자가 아닌 텃트, 그리고 애욕의 대상이 아닌 에즈, 이들 둘이 모두 똑같이 가족이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감각은, 멀리 미국에 있는 수라는 여성에 의해 가능해진 것이었다. 여기서 주목될 것은 침탈당할 뻔



한 정조의 보존이 아니라, 어쩌면 수에게서 보는 에즈의 미래, 즉 빨간 꽃이 그려진 기모노와 오비가 수가 상기시키는 하얀 페이트의 파란 잔디 집으로 교차되는 양상일 것이다. 그러니까 “굿나잇, 나이스” 인사 후 텃드는 재빨리 빗장을 걸어 내몰아졌던 데 비해, 금발의 여인 수는 오히려 내내 에즈의 머리 속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이 서구의 여성이 불러일으키는 휴머니즘적 자각은 펠 벅이 진행하는 인도주의 사업들을 떠올리게 한다. 이즈음 펠 벅은 더 이상 중국을 대표로 하는 아시아 문명의 생명력이 아니라, 혼혈아 문제 등 일본 혹은 조선에서 일어나는 미군정책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해결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UN을 포함해 인도주의에 기반한 서구여성들의 조직적 지원은 아메리카 스윛홈의 이데올로기처럼 남한에서는 도덕주의를 강화하는 정책들로 수렴되기도 했던 것이다<sup>38)</sup> 미군정이 물러나고 대한민국(R.O.K)이 들어선 이후 남한여성은 그러한 계몽적 여성정책에의 기여로 더욱 자신의 입지를 다질 수 있었다. 다시 말해 펠 벅이 주장한 인도주의가 민중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행진하게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면, 남한여성이 실천한 인도주의는 이후 공창폐지, 축첩금지, 신생활 운동 등에서 보듯 계몽적인 정책으로 구현되어갔다는 것이다.

#### 4. 결론에 대신해

이 글은 펠 벅을 중심으로 해방기 세계부인의 모델이 인도주의를 보여주는 여성명망가로 낙착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는 강대국 중심의 전

38) 해방기에 여성운동에 있어 가장 성과를 내었던 것은 역시 참정권의 획득과 의회로의 진출이었다. 그러나 여성들의 투표권 획득과 일련의 제도적 성취는 종종 사회주의 위협에 대항하는 부르주아 입헌주의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이때 법적인 테두리에서 실현되는 여성관련정책들은 도덕주의적 프레임에 한정되어 우선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을 보인다. 관련해서는 윤정은, 『해방 후 국가건설과정에서 우익진영 여성들의 의회진출운동』, 『역사문화연구』 24, 2006. 6 참조.

후처리에 맞서 약소민족의 자주독립을 말했던 펄 벅이 UN을 내세운 인도주의에 경도되어 갔던 과정과도 맞물린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나름대로 서구 세계, 그리고 미국 국내에서 비판적 입지를 견지하고자 했던 펄 벅과 달리, 38선의 실정화와 더불어 활약했던 남한여성들은 이러한 펄 벅의 인도주의를 계몽적 정책활동의 논리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남한이 아직 대한민국이 되기 전, 이들 남한여성들은 미국 주도의 UN이라는 국제무대에서 조선민족을 대표했고, 또 그들 세계부인과 유사평등의 관계를 전시했다.

물론 『정복자의 처녀』의 에프가 마지막에 “서로 바다 건너 있는 두 여자. 그는 나의 언니다. 에프는 생각을 하였다. 나를 구하여 준 나의 언니. ‘수 언니!’ 소리내어 불러보았다”고 했듯이, 이들 동서 여성명망가들의 연대는 위계적이었다. 그러나 해방기 폐업공창구제연맹장으로 활약했던 김말봉이 한국의 펄 벅으로 곧 불리게 되었던 것처럼<sup>39)</sup>, 이들 남한여성의 계몽적 활약은 대한민국 국가건설과정에서 참정을 위한 제도적 성취와 실질적으로 연결되었다. 또한 전후 민주주의의 확장이라는 의미에서 UN 주도로 제기되었던 여성평등에 대한 국제적 표준은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승전과 해방의 열기가 걷히고, 생활이 더욱 그 무게를 더해올 당시, 미국 내의 보수적 안정추구를 비판하던 펄 벅의 인도주의로의 호소가, 남한에서는 사회주의 여성해방이론 대신에 자리를 취한 계몽주의 여성정책과 맞닿게 되었음은 되짚어질 만하다. 물론 이 흐름이 해방과 전쟁을 지나, 새로운 공적영역의 일부로 여성들에게 열렬히 추구되었을 당시

39) 이 한국의 펄 벅이라는 명칭은, 대중소설의 성취와 문학에서의 여성지위 등과도 관련 있는 명칭이었지만, 더 직접적으로는 소설 『화려한 지옥』 발표 등과 더불어 해방기 폐업공창구제연맹장으로 활약한 때문이었을 것이다. 최지현은 김말봉의 『화려한 지옥』을 통해 해방기 여성국민화의 일환으로 진행된 공창폐지연대와 같은 사회구제활동이 정화를 통한 가정 복귀라는 형식으로 여성연대를 만들어내었다고 논의한 바 있다. 관련해서는 최지현, 『해방기 공창폐지운동과 여성연대(solidarity) 연구』, 『여성문학연구』 19, 2008.

의 정황 역시도 더욱 논구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들의 입지는 정치적 전략에 의했어도, 언제나 탈이념으로 주장되어왔던 것을 상기해보자. 그렇다면 펄 벅 역시도 다시 『대지』의 작가로 낙착되었던 사실이 주목되어야할 것이다.<sup>40)</sup> 1960년대 전집이 간행된 대표적인 서구의 여류작가로서 펄 벅은, 소사회망원(현 펄 벅 재단)의 개관에서 보듯 숭고한 인도주의자로 미국보다 먼저, 그리고 더 오래 한국에서 기념되었다. 그리고 해방기 참조되고 번역되었던 펄 벅의 비판적 발언과 문체적 작품은 기억 속에서 사라져갔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매일신보)서울신문』, 『자유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신조선보』, 『문화창조』, 『신세대』, 『민성』, 『신천지』, 『개벽』, 『여학원』, 『여성공론』, 『생활문화』, 『여성문화』 등 해방기 발간 신문 및 잡지.

펄 벅, 『피난군』, 임학수 역, 『세계단편선집』, 1946.7.

피억 S. 백, 『백인녀와 황인남』, 이호근 역, 『민성』 4:5, 1948.5.1.

펄 벅 여사, 『정복자의 처녀』, 채정근 역, 『부인』 3:3, 1948.8.1.

### 2. 단행본

김병철, 『세계문학번역서지목록총람: 1895~1987』, 국학자료원, 2002.

김병철, 『한국근대번역문학사연구』(하), 을유문화사, 1975, 825쪽.

변화순·김은경, 『유엔여성지위위원회 50년과 한국활동 10년』, 한국여성개발원, 1997.12, 10~17쪽.

오영식 편저, 『해방기 간행도서 총목록: 1945~1950』, 소명, 2009.

40) 이후에는 다시 『대지』가 단행본으로 재차 발간되기 시작한다. 펄벅, 『대지』(일부), 김성철 역, 학림사, 1949; 펄벅, 『대지』, 노춘성, 학림사, 1949 등.

최영희, 『격동의 해방3년』,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6, 56, 152쪽.

피터 콘, 『필 벅 평전』, 이한음 역, 은행나무, 2006, 475~482쪽.

### 3. 논문

김길수, 「필 벅의 <동풍서풍>: 여성억압과 가부장적 지배구조의 해체」, 『영어영문학연구』 37권 2호, 대한영어영문학회, 2011.5, 19~41면.

김은실, 권김현영, 「1950년대 1공화국 국가건설기 공적영역의 형성과 젠더 정치」, 『여성학 논집』 제29집 1호, 2012.

김효원, 「필벅의 문학작품에 나타난 세계정신」, 『영어영문학』 19, 한국강원 영어영문학회, 2000, 31~65면.

문경란, 「미군정기 한국여성운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9.

박용규, 「미군정기 여성신문과 여성운동」, 『한국언론정보학보』 19, 한국언론정보학회, 2002 가을, 125~153면.

박지영, 「해방기 지식장의 재편과 “번역”의 정치학」, 『대동문화연구』 68, 2009.

심상욱, 「동-서 양쪽에서 재조명되는 필 벅」, 『신영어영문학』, 신영어영문학회, 2007, 91~108면.

심상욱, 「동서융합의 관점에서 본 필 벅의 페미니즘」, 『동서비교문학저널』, 동서비교문학학회, 2006, 63~82면.

심상욱, 「필 벅에 대한 재고」, 『2006년 가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대한영어영문학회, 2006.

양동숙, 「대한부인회의 결성과 활동연구」, 『한국학논총』 34,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2010.8, 1147~1192면.

윤정은, 「해방 후 국가건설과정에서 우익진영 여성들의 의회진출운동」, 『역사문화연구』 24, 2006.6, 211~248면.

이배용 외, 「한국여성사 정립을 위한 여성인물 유형연구 VI(1945~1948)」, 『여성학논집』 13, 1999. 7~130면.

이배용, 「미군정기 여성생활의 변모와 여성의식, 1945~1948」, 『역사학보』

150, 1999. 6, 159~214면.

- 이배용, 『한국여성생활과 의식변화에 대한 현대사적 고찰(1948~1970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25, 2003, 597~637면.
- 이배용 · 조경원, 『해방이후 여성교육정책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양상-미군정기(1945)~제1공화국 시기(1960)』, 『한국교육사학』 22, 한국교육사학회, 2000, 261~283면.
- 이승희, 『한국여성운동사 연구: 미군정기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정의과 박사학위논문, 1991.
- 정현주, 『해방 후부터 1950년대까지의 여성단체의 성격과 활동내용: 현대여성단체의 기원』, 『유관순 연구』 5, 백석대 유관순연구소, 2005.12, 89~108면.
- 최지현, 『해방기 공창폐지운동과 여성연대(solidarity) 연구』, 『여성문학연구』 19, 2008, 267~292면.
- 황정미, 『해방 후 초기 국가기구의 형성과 여성(1946~1960)』, 『한국학보』 190, 2002, 323~372면.

## Abstract

### The Acceptance of Pearl S. Buck and the positioning of South Korean Women in the liberation period

Ryu, Jin-Hee

How does the Joseon(朝鮮) women under the colonial and imperial regime become the South Korea(南韓) women in the international and regional system. This article studies the political movement of women in the liberation period(1945~1948), centered on the reference and translation of 'Ladies of the World'. Especially, Pearl S. Buck of this period is mentioned most frequently more than anybody else. However, the works referred here are not her famous Nobel Prize-winning novels such as *The Good Earth*, but her short stories that are unfamiliar to the world, both in earlier and in later times. Also, here, the point of discussion is at the liberation of people of a small and weak power and the solution for Joseon issue in the post-World War II period, instead of the Oriental world, which marks as the characteristic of Pearl S. Buck.

Interestingly, although Pearl S. Buck stands for the Asian values in her struggle against the US nationalism, as for the Joseon issue, she stands against the trusteeship in conformity with the rightist insistence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South Korea government. Her claim on the prevention of World War through a substantial aid, based on humanitarianism instead of an antagonistic anticommunism, was also adopted as the initiative

logic for rightist women's movement, which lapsed into silence for a while right after Korea's liberation.

Here exists the situation of Korean Peninsula, in which the North Korea(北朝鮮) and South Korea(南韓) becomes separated with the demarcation of 38th parallel. At this point, the South Korean women took notice of certain famous women who were active internationally, such as the wife of Roosevelt, Eleanor and the wife of Chiang Kai Shek, Soong May Ling, instead of some unknown revolutionary women of the Soviet Union or China, introduced right after the liberation. And at the root of their identity, there was the American Humanitarianism based on the establishment and activities of the UN, rather than the women's liberation theory of socialism such as Kollontay, Bebel and Engels. This is physically due to the assistance of U.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and the influence by American civilization. Despite the fact that Pearl S. Buck suffered from a suspicion of leftist communist sympathizer in the US, she was considered as the model of rightist women in South Korea.

As the fever from the liberation wave passed away and people's livelihood aggravated, these South Korean women started to carry out the policies of enlightenment for the women. In addition, these women, who were from a region still without a legal qualification as a proper nation, were able to demonstrate a similar equal relationship with the wives of the world-famous public figures on the international stage. Of course, the international standard of women's equality, brought up under the influence of UN at this time still creates a positive effect. On the other hand, the acknowledgement and acceptance of Pearl S. Buck in South Korea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reveals the moment, in which the socialist theory is displaced by the humanitarianism policy. The principal agent of this procedure was the women, and as its content claims not to support any ideology, Pearl S. Buck settles again as the author of 『The Good Earth』 in the Republic of Korea afterwards. The critical statements and problematic work piece referred to and translated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vanished from our memory in an instant.

Key words : the liberation period, Pearl S. Buck, Translation, North Korea/South Korea, South Korean women, UN, America, US military, U.S Military Government, humanitarianism

- 본 논문은 10월 31일에 접수되어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11월 28일에 게재 확정되었음.